



소속 토트넘 홋스퍼  
국가 잉글랜드  
나이 1993.07.28.  
신장 188cm

## 해리케인 ★★★★★

# 런던보이는 매일 조금씩 월드클래스에 다가선다

잉글랜드는 현대 축구의 주인이다. 지금도 축구의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주체로서 존재한다. 그런 곳에서 지금까지 배출한 '월드클래스'는 사실상 네 명뿐이었다. 스탠리 매튜스, 보비 무어, 케빈 키건, 웨인 루니다. 지금 잉글랜드 팬들은 다섯 번째 '월클'의 탄생을 노래한다. 런던의 아들 해리 케인이다

지금 케인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의 '떡잎'은 거의 유전자 변이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케인의 축구 인생은 17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토트넘과 프로 계약에 성공했고(당시도 그는 평범한 유망주였다) 반년 뒤 임대된 레이턴 오리엔트에서 프로 첫 경기에 출전했다. 그로부터 케인은 원소속팀과 다양한 임대처(밀월, 노리치, 레스터) 사이를 바삐 오갔다. 잦은 임대 이적 속에서 리듬과 실력을 모두 잃어버리는 유망주들과 달리 케인은 특유의 성실한 생활 태도로 축구에 전념했다. 준비된 골잡이는 21세에 찾아온 토트넘 첫 리그 선발 경기에서 골을 터트렸다. 두 번째 선발에서 2호 골, 세 번째 선발에서 3호 골을 기록하면서 케인은 토트넘 1군의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쟁취했다. 첫 풀타임 시즌이었던 2014-15시즌 케인의 최종 기록은 51경기 31골이었다. 토트넘 팬들이 광분하고도 남을 활약상이다.

케인의 '월클' 잠재력은 3시즌 연속 20골 고지를 밟은 2016-17시즌 막바지에 입증되었다. 36라운드까지 케인은 리그 22골로 로멜루 루카쿠(당시 에버턴, 24골)에 이어 득점 부문 2위를 달렸다. 루카쿠의 화려한 성공이 예견되던 잔여 2경기에서 케인은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37라운드 레스터 원정에서 혼자 4골을 터트렸고, 최종전인 헐시트 원정에서도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두 경기에서 7골을 쓸어 담은 케인은 리그 29골로 당당히 2연속 득점왕에 올랐다. 2017년 유럽 축구는 케인의 독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케인은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아포엘(키프로스)를 상대로 3골을 넣었다. 2017년 들어서만 여섯 번째 해트트릭이다. 발롱도르 수상자 마이클 오언의 통산 해트트릭이 12회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케인의 최근 기세를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케인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혼자 46골을 넣고 있다. '신계' 호날두(44골)와 메시(37골)보다 많다.

케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3세라는 나이와 현재 실적, 계약 만료 시점(2022년), 무엇보다 네이마르 효과로 인해 토트넘의 대니얼 리비 회장은 "2억 파운드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다. 호날두와 메시를 제외한 9번 공격수 포지션에서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케인이 가장 '핫'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직설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영국 언론 앞에 선 지네딘 지단 감독은 케인의 영입 관련 질문 공세에 "완성형 선수"로 화답했다.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주며 페널티박스 바깥에서도 서슴없이 골을 터트릴 줄 아는(박스 외곽 슈팅 시도가 경기당 1.4개나 된다) 23세 최전방 공격수는 많지 않다. 2018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케인이 토트넘 선배인 가레스 베일의 길을 밟기로 한들 놀라지 마시라.

### SEASONAL STATS \* : 임대 모든 기록은 2017년 11월 15일 기준

클럽	시즌	출전	득점
토트넘	2009-10	-	-
레이턴 오리엔트*	2010-11	18	5
토트넘	2011-12	6	1
밀월*	2011-12	27	9
토트넘	2012-13	1	-
노리치 시티*	2012-13	5	-
레스터 시티*	2012-13	15	2
토트넘	2013-14	19	4
토트넘	2014-15	51	31
토트넘	2015-16	50	28
토트넘	2016-17	38	35
토트넘	2017-18	14	13
합계		244	128

## VENOM MOMENT

토트넘 2-2 아스널 (2016.03.05)



2016년 여름 런던에서 <포포투 한국판>과 만난 해리 케인은 가장 뿌듯한 골로 "아스널전의 모든 골"이라고 꼽았다. 지금까지 케인은 노스런던 데비 6경기(리그 5, 리그 컵 1)에서 6골을 넣어 '아스널 킬러' 본색을 발휘 중이다. 2014-15시즌 홈경기에서는 0-1로 뒤지던 상황에서 혼자 두 골을 터트려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케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골은 2016년 3월 있었던 홈경기였다. 1-1로 맞서던 후반 17분 케인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았다.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케인은 골대 쪽을 힐끗 보고는 라인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감아 찼다. 볼은 아스널의 다비드 오스피나의 키를 넘어 파코너에 그대로 꽂혔다. 페널티박스 바깥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케인의 최대 장점이 고스란히 담긴 골 장면이었다. 비록 경기는 2-2로 마무리되었으나 이날 노스런던 데비에서도 케인은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 WHAT THEY SAID

"토트넘 U-21 시절의 케인은 테디 셰링엄처럼 움직였다. 영리하게 정확한 위치에 미리 가 있었다. 하지만 슛을 때리는 방식은 앨런 시어러였다. 시어러의 골들은 모두 있는 힘껏 때린 슛에서 나왔다. 밀어 넣는 골이 거의 없었다. 해리가 그렇다. 세계 차는데 결정력이 기막하다." - 레스 퍼다넬, 전 토트넘 &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해리는 최고 골잡이 중 한 명이다. 볼을 다루는 데에는 최고 중 하나다. 지금 당장 '최고다'라고 하긴 어려울지 모르지만, '최고 중 한 명인 것은 확실하다.'" -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

"정말 대단한 시즌(2015)을 보냈다. 그는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데, 그는 운동량도 최고다. 계속 움직이면서 팀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 티에리 앙리, 전 아스널 & 프랑스 스트라이커

